

신안갯벌 우수성 알린다...유네스코 등재 3주년 사진전

내일까지 신안군청 로비·14~18일 국회의원회관 로비서 열려 2100여 생물종·철새 90종 보유...11월 국제철새심포지엄 개최

신안군이 신안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사진전을 연다. 사진전은 오는 11일까지 신안군청 로비에서, 14일부터 18일까지는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개최하면서 청정지역 신안 대자연의 보고를 이어갈 계획으로 자연의 중요성을 다시 널리 알릴 갈 방침이다. 이번 사진전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항공사진으로 신안갯벌의 사계절을 담은 우수한 경관들을 전시한다. 신안갯벌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중 86%에 달하

는 1100.86km가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전 세계 모든 형태의 갯벌이 관찰되며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 '모래-지갈 선형체'라는 특이퇴적체가 발달하고 있다. 신안갯벌에는 2100여 종에 달하는 생물종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보호종을 포함해 90종, 10만 개체 이상의 철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개가 넘는 섬과 섬 사이를 지나고 크고 작은 조수로에 의해 넓은 갯벌이 발달되어 있고 섬을 둘러싸고 발달한 갯벌이라는 공간에서 모든 형

태의 갯벌을 관찰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도 높은 가치를 보이고 있다. 신안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제44차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위원국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앞장선 신안갯벌은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에 대해 꾸준히 기록해 나가면서 우수한 경관과 자연자산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세계유산 등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철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국제철새심포지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 11월, 제13회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군청 로비에서 열고 있는 사진전을 관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HD현대삼호, 업계 최초 오폐수100% 재이용한다

시설 추가 구축 하루 3400t 처리

HD현대삼호(대표이사 신현대 사장)가 재이용수 고도처리시설 추가 구축을 통해 업계 최초로 오폐수를 100% 재이용한다. HD현대삼호는 최근 회사 야드 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신현대 사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이용수 고도처리시설 가동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재이용수 고도처리시설은 오폐수를 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수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존 중수도 시설에서는 하루 평균 오폐수 발생량 3000여t의 12% 수준인 368t까지만 처리해 왔으나, 이번 추가 구축으로 하루 3400여t까지 수용 가능해져 오폐수 전량을 재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온과 계절에 상관없이 재이용수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원 확보는 물론, 연 6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처리된 재이용수는 공업용수를 비롯해 조경, 살수, 소방용수



HD현대삼호는 최근 회사 야드 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신현대 사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이용수 고도처리시설 가동식을 가졌다. (HD현대삼호 제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완벽한 오폐수 처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

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도 앞장서 ESG경영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환영"

21일까지 조사 후 복구계획 제출

해남군은 지난 8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정부 결정을 환영하고 피해 최소화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명현관 군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벼멸구 피해조사와 방제 활동에 전력한 군민과 직원, 농업재해 인정에 힘을 보태 박지원 국회의원, 전남도, 해남군의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벼멸구 방제를 완료하고 박 의원 등 정치권과 함께 농업재해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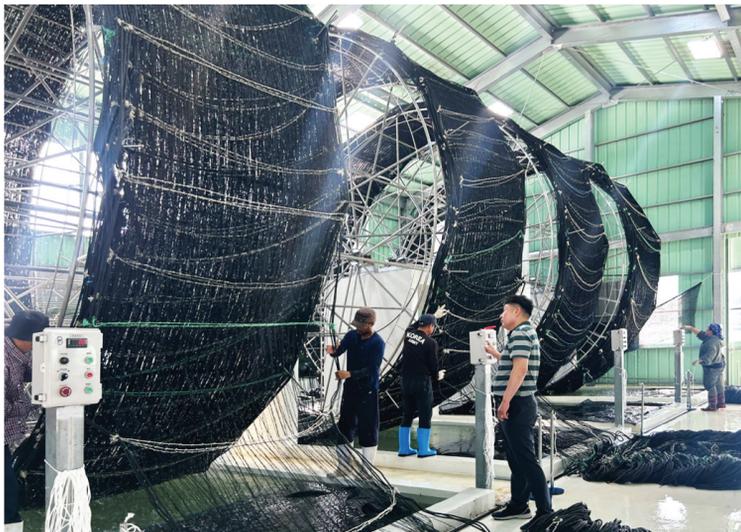
을 건의해 왔다. 농업재해 인정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 등 피해복구비가 지원된다. 생계비 지원 및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이자 감면 등 재해대책법상 지원도 가능해진다. 군은 곧바로 피해 정밀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21일까지 피해조사 후 복구계획을 제출하면 11월 말까지 재난지원금을 확정,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 벼멸구 발생 면적은 약 5천ha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벼멸구 농업재해 인정에는 발 빠른 대응이

주요했다고 군은 자평했다. 해남군은 9월에도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벼멸구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긴급 회의를 열어 예비비 7억2100만원을 투입해 벼재배 전체 면적인 2만235ha에 대한 벼멸구 방제를 선제적으로 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약제 5만9000병을 확보하고 즉각적인 방제에 돌입하기도 했다. 추석 연휴와 휴일을 모두 반납하고,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쳤지만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가동해 연일 벼멸구 방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앞으로 피해 벼의 수매단가 인상, 수발아 가루 쌀 전량 수매 및 1등급 책정 등도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고수온에 늦어진 김 채묘 막바지 작업 속도

곱창김 100%, 일반·돌김 70% 채묘 친환경 김 어망 등 145억원 지원

해남군은 고수온으로 인한 올해 김 채묘 시기가 1주일 이상 늦어졌지만 최근 적정 수온이 유지되면서 막바지 채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7일 기준 곱창김은 100%, 일반김과 돌김은 70% 채묘를 완료했으며, 군은 채묘예보에 따라 적기 채묘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점검 등을 통해 친환경 김 생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8254ha 면적, 시설량 16만 5088척의 김 양식실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년도 대비 면적은 17ha, 시설량은 346척 증가했다. 해남군의 2024년산 물김 위판액은 1138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한 가운데 2025년산 물김 또한 최대 위판액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은 수산양식의 주력 품종인 김의 품질향상과 김 양식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김 어망 지원, 양식 기자재 공급 등 16개 지원사업에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품질 김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김 양식 시기에 맞춰 보급돼야 하는 김 활성처리제를 이미 어촌계별로 납품 완료해 잡초 제거와 병해 방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김 육상채묘. 특히 2023년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돼 50억원의 예산을 확보, 유기인증 친환경 지주식 김의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김 수출 활성화로 김 양식이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해남 김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맛플무안몰' 회원 1만명 돌파 기념 20% 할인

한돈·고구마 등 10월 특별이벤트

무안군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이 회원수 1만명 돌파를 기념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10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일부터 18일까지 전 제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플릿 이벤트'로 추가 할인쿠폰을 지급해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21일부터 31일까지는 가을맞이 '한돈 10% 할인'과 '고구마 20% 할인' 기획전이 펼쳐져 무안의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맛플무안몰이 개장 5개월 만에 회원수 1만명을 돌파한 것은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 도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고 맛플무안몰의 지속적



맛플무안몰 할인 이벤트. 이번 행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에 진행된 '양파-마늘 기획전'에서는 매출 5000만원, 3회에 걸쳐 진행된 '쌀 소비촉진 기획전'에서는 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호응을 받았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완도군은 지난달 30일 전남도산림연구원에서 용역사,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완도군 제공)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설계 용역 착수

전남도·용역사 참가 보고회 주제원 등 5대 랜드마크 조성

완도군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완도군은 최근 전남도산림연구원에서 용역사,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본설계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등을 감안해 시설물 규모와 배치,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 등을 비교·분석하는 절차로 향후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본 자료다. 이번 착수 보고회에서는 전국 난대림 중 35%를 차지하는 완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진과 자문단이 집중 논의했다. 기본설계는 내년 상반기 완료로 목표로 추진한다. 정영국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그동안 실무 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난·아열대 수목 보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타 수목원과 차별화된 난대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비 1478억원이 투입되는 국립난대수목원은 완도수목원 부지 381ha에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기본계획에는 지역 자생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난대식물 주제원', 수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레이크가든센터', 난대 숲과 다도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다양한 높이에 난대원 시립을 느낄 수 있는 '트리탑 테코로드', 정상부까지 이동하며 난대림을 감상할 수 있는 '모노레일' 등 5대 랜드마크 조성 계획을 담았다. 수목원 개원 시 연간 수십만 명의 관람객과 1조 원 이상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 1만여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완도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와 연계해 산림과 해양을 아우르는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도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치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 역대 최다 참가

영광에서 열린 '2024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가 역대 최다 참가자를 모으며 막을 내렸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4-6일 대마산단의 e모빌리티연구소에서 전남도와 영광군, 한국자동차 공학회, 한국자동차연구원 공동주최로 대회에 68개팀 1985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전기자동차 경연을 통해 미래자동차 분야 핵심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진행됐다.

올해 전기자동차(ev) 부문 대상은 첫 출전한 전남대학교 SEM팀이 차지하며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김정성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경연이 학생들에게 값진 자선이 될 것이며, 앞으로 e모빌리티 산업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며 "대회를 통해 도전과 혁신의 가치를 배운 모든 참가자들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